



‘귀족 가문의 수호천사, 브로켈’

브로켈 샤르도네

Broquel Chardonnay

지역	멘도자 > 우코밸리 > 알토 아그레로		
포도품종	샤르도네 100%		
알코올	13.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0-12℃		
테이스팅 노트	꿀, 시나몬, 사과와 아로마가 우아하게 느껴지고 부드러운 마무리감이 특징인 와인이다. 짭짤은 과실류의 느낌과 함께 오크터치로 부터 나오는 버터리함도 느낄 수 있으며, 미네랄리티가 덧붙여진 와인이다.		
페어링 TIP	채소(샐러드)/ 치즈/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제품설명



브로켈은 왕조나 귀족 가문을 수호하는 방패나 칼, 수호천사라는 의미를 지닌다. 브로켈 말벙과 까베르네 소비뇽이 한국에 큰 인기를 끌며 새롭게 런칭하게 된 화이트 와인이다. 아르헨티나의 샤르도네는 안데스 산맥의 영향을 받아 더욱 미네랄이 풍부하고, 식물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와인을 생산한다. 브로켈 샤르도네는 프렌치 오크 통에서 말산 발효 진행 후 9개월 동안 숙성 진행 후 병입한다.

수상내역



2023빈티지 91점
2022빈티지 90점
2021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2점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써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 (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벙'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비야드 말벙'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벙'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